

 국토교통부	<h1>보도자료</h1>		<small>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</small> 보다나은 정부
	배포일시	2019.9.30.(월)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	자동차운영보험과	담당자	과장 이대섭, 사무관 유찬호, 주무관 박정길 ☎ (044) 201-3856, 3857
보도일시		2019년 10월 1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9.30.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‘자동차365’ 에서 중고차 실매물 확인 검색하세요

차량번호 입력으로 온라인 허위·미끼매물 여부 확인·소비자 피해예방 기대

울산에 사는 A씨는 한 온라인 중고차매매사이트에서 유명 외제차가 시세의 30% 수준인 것을 발견하고, 전화를 걸어 차량을 즉시 구매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. 상담원은 법원경매를 통해 들여와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, A씨는 다음 날 새벽 4시에 KTX를 타고 수도권의 ○○중고차매매단지으로 찾아갔다. 그러나 현장에서 만난 판매사원은 해당 차량이 바닷물에 침수되었던 차량이라는 등의 핑계를 대며 다른 차를 사도록 강요하였다.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오는 10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 자동차 365 홈페이지(www.car365.go.kr)에서 중고자동차 실매물 검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.
- 자동차 365 중고차 실매물 검색 서비스는 매물로 나온 중고자동차의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차량의 매도여부, 실제 보유업체·전화번호, 차량 기본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.
- 이를 통해 소비자는 해당 차량을 보유한 실제 매매상사와 소속 조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, 허위매물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.
- 그동안 중고자동차 소비자들은 온라인에 게재된 중고차 광고의 진위 여부를 알 수 없어 허위·미끼매물 피해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.

- 대표적인 사례는 온라인 사이트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자동차의 가격을 허위로 기재한 후 고객의 방문을 유도하여 비싼 중고차를 판매하는 것이다.
- 특히 상당수가 다른 사이트에 등록된 차량 사진을 무단 복사하여 자신의 매물로 올려놓고 싼 가격에 광고하는 경우가 많아, 소비자 등이 허위광고인지 여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다.
- 이번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협업하여 제공하는 것으로, 소비자는 중고차 매매조합이 보유한 매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.
- 이를 계기로 허위·미끼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, 장기적으로 중고차 업계 전반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 기대된다.
- 국토교통부 이대섭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“특별한 이유 없이 시세보다 매우 낮은 가격의 매물은 허위·미끼매물일 가능성이 높다”면서,
- “자동차 365 실매물 검색서비스를 통해 확인된 실제 보유업체와 거래하여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”고 당부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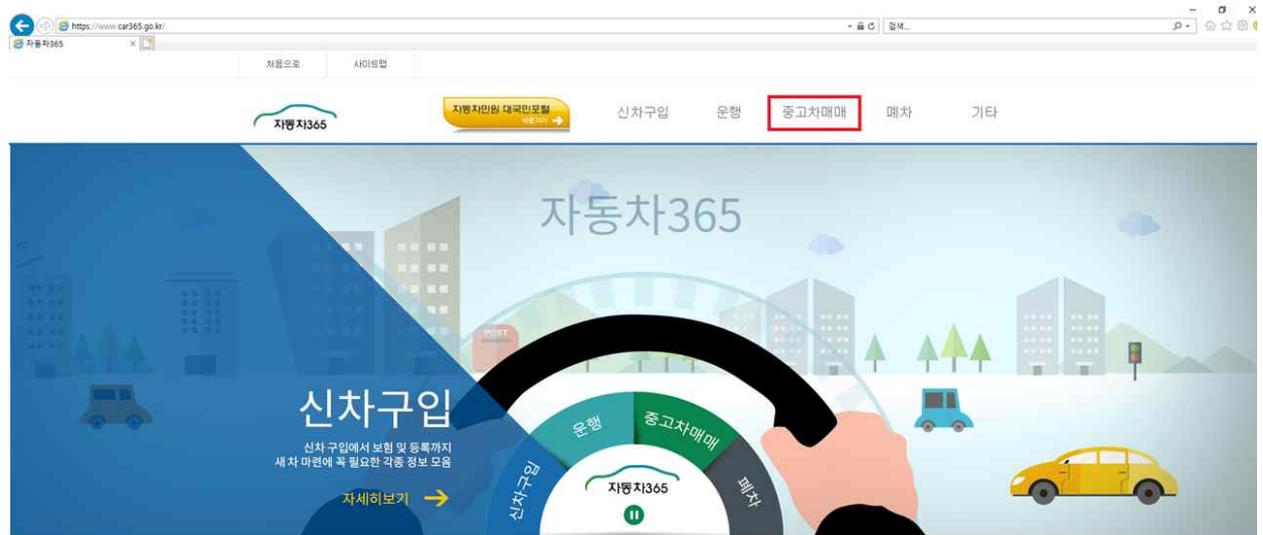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자동차 운영보험과 유찬호 사무관(☎ 044-201-385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

사진 자료(검색화면 예시)

[자동차 365 홈페이지 메인화면]



[중고차 실매물 조회 화면]

